

광주시,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시는 조기은퇴나 퇴직 등으로 생애전환기를 맞은 장년층(45세~64세)들의 재취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광주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장년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숙련된 사회·경제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은퇴와 노후설계에 대한 정보, 일자리, 사회참여 등에 대한 욕구와 정책수요가 많음에도 청년·노인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70세 전후까지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장년층들의 노동연령 인식 변화에 발맞춰 광주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지원을 목표로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반 내실화 등 3개

빛고을 50+일자리 사업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770개 창출 일자리, 사회참여 등 종합지원 위한 빛고을 50+센터 설치·운영

분야 10개 사업으로 총 35억9300만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770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0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기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빛고을 50+일자리 지원', '직종별 취업 면접 주간 운영', '취·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중 '빛고을 50+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과 달리 우리시 정책 방향에 맞는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 운영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심야간 여성이 귀갓길 동행 및 안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분야 과제로 은퇴한 장년층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 및 꾸준한 자기계발이 필요한 만큼 광주평생교육원,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고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등 인생재설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일, 배움, 여가, 복지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과 유관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년층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빛고을 50+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100세 시

대를 맞아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소득활동이 필요한데, 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역할상실은 가정을 넘어 사회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장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자 노후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생애재설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청소년 학습 지원, 입산부 및 영유아부도 심리상담 지원, 일자리 컨설팅 등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될 수행기관 4곳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신중년(50세~70세) 50명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광훈 기자



광주은행, 예비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출시

최저 연 3.15%... 상황방법 자유롭게 선택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31일부터 예비 의사·약사, 공무원·임용고시 합격자, 전문자격증 취득자에게 사회적 정착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예비 전문직 신용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비 전문직 신용대출'은 전문자격증 취득 후 취업(개업) 전까지 공백기간 동안 생활자금 및 사회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특화상품으로 자격증별 합격 증명 서류 지참 시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자격별로 최대 5천만 원이며,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3.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개인별 자금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광주은행 박기원 영업기획부장은 "소득증빙 부족으로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문직 합격자 고객님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광주는 행은 고객님의 풍족한 금융생활을 위해 고객님의 시선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교육부 심사가 4월 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전남도,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 청사에 근무 중인 교육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 27일 개최하려던 일주일 순연된 한전공대 법인설립 인가를 다음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이 내달 4일로 잠정 확정됐다. 학교법인설립 심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위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인설립 인가가 의결된다.

한전공대 '법인설립 심사' 4일 개최... 화상방식 진행

한전 이사회 28일 공대 설립 재원 '3956억원' 출연계획안 논의

이날 법인설립 인가 결정이 나면 순연됐던 총장 인선과 이사진 구성, 교원 선발, 캠퍼스 착공을 위한 후속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총장 인선을 위해 2월 말 열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총장 추천위원회 심의를 4월 중 진행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총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마감된 한전공대 캠퍼스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도 내달

초에 발표하고 상반기 내 착공을 위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인설립 인가에 대비해 한전 이사회도 지난 28일 2차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개교 시까지 3956억원을 지원하는 '출연 계획안' 보고회를 갖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서 교육부 심사위가 한전 측에 요청한 시기별 구체적인 자체 재원 마련 안이 최근 한전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제출된 만큼 학교법인 설립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지향하는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 학부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정원의 +α(외국인 학생)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 부지에 들어선다.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 한전과 전남도는 대형 연구시설 안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반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광역시시는 선불형 카드의 재충전 사용 등 광주 상생카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광주상생카드는 발행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선불형이 재충전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회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선불형을 재충전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등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용자 구

광주시, 상생선불카드 운영방식 개선

재충전 시 할인 적용, 잔액 환불 댄 할인지원액 정산

매 및 사용편의는 물론 자원 절약 효과도 거두게 됐다.

더불어 선불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구매 시 액면가만큼 일괄 할인 받았던 금액 가운데 환불 신청 당시 사용액만큼 정산하여 환불 조치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0만원권 선불카드 구입 시에 10%에 해당되는 5만원을 일괄 할인받아 구매하게 되는데, 60%인 30만원 사용 후 환불을 신청하면 미사용 잔액 20만원에 해당되는 2만원의 할인액을 제외하고 18만원을 환불하는 방식이다. /이승원 기자

또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의 율해 발행 목표액을 당초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월 말까지 예정됐던 10% 특별할인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두진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광주상생카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도록 발행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전남도,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확대 추진

드라이브스루 판촉 행사 4월중 3회 추가 실시 등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연합회와 함께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안에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촉 행사'를 서남권을 중심으로 4월중 3회에 걸쳐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에 걸쳐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주말을 이용,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활어회를 포장 판매해 5천6백만 원어치를 판매 하는 등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최근 2

회에 걸쳐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남도도는 할인판매 행사를 도내 유관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 지금까지 2억 7백만 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으며 4월 말까지 기간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촉활동 강화를 위해 도내 소평물인 '남도장터'를 통해 수산물을 최대 20% 할인 쿠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 소평물 수산물 할인판매에 이어, 일부 시·군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맛있게 먹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늬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